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이 웅
(성균관대학교)

임 란*
(국민연금연구원)

본 연구는 경험된 실재로서의 불평등인 박탈경험과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 및 이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 데이터(2013)를 활용하였고,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구 주 7,3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Sobel Test를 통해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추가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박탈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탈경험은 직접적으로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탈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인식, 박탈 및 우울과 관련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요용어: 박탈경험, 우울, 불평등인식, 사회불평등

* 교신저자: 임란, 국민연금연구원(amy1893@nps.or.kr)

■ 투고일: 2014.10.30 ■ 수정일: 2014.12.14 ■ 게재확정일: 2014.12.30

I. 서론

불평등(inequality)은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이자 현상이므로 불평등에 관한 논의에서 '무엇에 대한 불평등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Sen, 1992, 7-8). 이 가운데 특히 권력과 부(riches)는 불평등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Edward, 1994: 4-8; 박호성, 1994: 127), 따라서 불평등은 권위나 재화가 전유되거나 박탈당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Sen, 1981; Townsend, 1970; 박경숙, 2008: 97 재인용). 이러한 불평등은 차이가 아닌 사회적 불이익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이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의미하게 된다(Mullard & Spicker, 1998: 126). 예컨대, 성평등의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즉 사회적 불이익을 제거해야함을 말한다. 따라서 불평등이란 기본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이자 권력의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불평등이 특히 문제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불평등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이 문제인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George & Widing, 1985: 124-128). 예컨대, 뒤르케임(Durkeim)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성장, 즉 '경제'와 '사회'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요인들로 종속이론에서는 '환경'과 '사회적 불평등'을 들고 있다(방하남 외, 2004: 3-4). 불평등이 문제인 두 번째 이유는 갈등론적 입장에서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해내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에서 불평등과 범죄(Fajnzylber & Lederman, 2002; Kelly, 2000; Wilkinson, 2005; 변재욱 외, 2013; 이철·장안식, 2009), 불평등과 행복¹⁾(Graham & Felton, 2006; Ferrer-i-Carbonell & Ramos, 2012; Wilkinson, 2005; 이양호 외, 2013), 그리고 불평등과 정치적·사회적 신뢰 및 갈등의 문제(Muller, 1993; Wilkinson, 2005; 강우진, 2012; 김봉석, 2008, 8; 김상돈, 2011; 박명호, 2003)를 주제로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불평등 수준이 높을 경우, 범죄는 많아지고, 행복 및 정치적·사회적 신뢰수준

1) 불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는 논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권리의 측면에서 행복을 증진시키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행복 체감도가 높고, 경제성장률도 더 높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여겨진다(Kenny, 1999: 21-22).

은 낮아지며 갈등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많은 통계자료에서도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관계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며, 평등한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 응집력 수치는 공동체적 삶이 더욱 건강하고, 살인율과 폭력 수준도 일관되게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Wilkinson, 2005: 47).

이러한 맥락에서 윌킨슨(Wilkinson)은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격차가 확대되고 이는 신뢰수준을 약화시키며, 이는 다시 우울증, 스트레스, 공격성, 사회적 불안 등의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약물이나 폭력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환경을 손상시킨다고 지적한다(Wilkinson, 2005: 37). 이에 다수의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불평등의 감소는 사회적 소속감을 증대시키며, 이 증진된 사회적 소속감은 사회질서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준다고 주장한다(George & Wilding, 1985: 123). 이처럼 불평등은 윤리적 차원에서의 당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의 결과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불평등을 분석·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불평등 분석은 계량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한 가지 접근방식만으로 불평등을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소득과 행복 간의 긍정적인 상관 및 인과관계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²⁾은 실질적 불평등 수준의 증가가 반드시 불평등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실질적 불평등 수준이 감소한다고 해서 불평등인식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실의 불평등이 부정의의 교의들³⁾에 의해 강력히 뒷받침되고 있다는 주장(Bauman, 2013; Dorling, 2011)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불평등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불평등인식(perception of inequality)이란 “평등원리와 실제적 평등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 주관적 감정이며, 교육·취업·승진 및 승급기회, 성별, 법집행, 소득 및 재산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들에 대한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Easterlin(1995, 2001, 2003, 2005, 2010) 참고할 것.

3) 돌링(Dorling, 2011)은 부정의와 관련된 잘못된 신념으로 ①엘리트주의는 효율적이다, ②배제는 필수적이다, ③편견은 자연스럽다, ④탐욕은 좋은 것이다, ⑤절망은 불가피하다의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의미한다(김상돈, 2011: 145; 박상수 외, 2012: 106). 불평등인식 개념에는 주관적 특성뿐만 아니라 현실의 물질적 요인과 같은 객관적 특성이 모두 존재하며, 따라서 불평등인식은 주관적·객관적 특성 간 역동적 관계를 반영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Lam, 2004: 9). 이처럼 불평등인식은 사람들의 주관적 감정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객관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불평등 인식은 실질적인 불평등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자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불평등이나 복지, 빈곤 문제에 있어서 주관적 인식(subjective perceptions)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개념으로 보고 있다(Franicevic, 2012, 226-229). 실제로 불평등 인식은 사회의 보편적인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며(강철희·이상철, 2013), 근로자의 경우 부당행위 의도(fraudulent intent)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njamin et al., 2011: 100). 또한 불평등 인식은 국정운영불만과 국가기관불신, 그리고 정치항의(political protest)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상돈, 2011), 민주주의의 심화과정에서 확대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의 효능에 대한 회의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강우진, 2012). 또한 불평등 인식은 정치적·사회적 유리(disengagement)와 높은 관련이 있으며, 신뢰와 정치적 효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보편적 불신 및 정치적 무관심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oveless, 2013). 이처럼 불평등 인식, 즉 불평등하다는 느낌은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으며, 효율성의 저해를 야기한다(Sen, 1999: 158).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불평등을 다룬 연구는 소득불평등이나 건강불평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불평등 인식을 주요 주제로 다룬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불평등 인식을 주요 주제로 다룬 연구에는 불평등 인식과 정치성향, 국가 및 보편적 신뢰, 민주주의의 효능 등 거시적인 정치·사회적 특성과의 관련성 연구(강우진, 2012; 강철희·이상철, 2013; 김상돈, 2011), 불평등 인식의 국가 간 비교 연구(최숙희·최순화, 2013; 박상수·서운석, 2012), 거주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불평등 인식수준과 빈곤관 차이 연구(장동호, 2011), 소득불평등 인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 연구(장승진, 2011)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하며, 이에 박탈경험과 우울, 그리고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의식(consciousness)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회 환경은 그들의 불평등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Lam, 2004, 6), 이러한 맥락에서 박탈경험과 같은 매우 직접적인 사회 환경은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박탈경험과 같은 실질적인 불평등의 경험과 불평등의 인식 사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매개하고 있다고 했을 때(박경숙, 2008: 97), 우울이라는 심리사회적 요인은 중요한 매개요인 중 하나로 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무기력 상황은 우울의 근본 원인이며, 우울한 사람은 자신과 세계, 그리고 장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Beck et al., 1979; 김경호·김지훈, 2008: 97 재인용).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불평등경험으로써 박탈경험은 불평등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박탈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 또한 불평등 인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박탈경험이 불평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매개요인으로 우울이라는 심리사회적 건강요인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 관계 논의

박탈(deprivation)은 기존의 빈곤개념이 갖는 한계를 넘어 인간이 경험하는 보다 다차원적인 결핍을 포괄하고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여 사용되고 있다(고영복, 2000: 139; 김교성·노혜진, 2011: 70). 이러한 맥락에서 타운센드(Townsend, 1979)는 박탈을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통 가질 수 있는 영양, 의복, 주택, 주거시설, 취로, 환경, 지리적인 조건에 관한 물리적인 표준(material standard)에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고용, 직업, 교육, 여가생활, 가족활동, 사회생활이나 사회관계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허중호 외, 2010: 96). 이와 유사하게 오펜하임(Oppenheim,

1998)은 박탈을 “물질적 기준(식료품, 의류, 주거 등)과 서비스 및 적절한 삶의 질(여가, 교육, 환경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김수현, 2003: 26). 윤태호(2010: 52)의 경우, 박탈을 빈곤개념과 비교하면서, “빈곤은 일반적으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 자원이 없음을 의미”하지만, 박탈은 “재정적인 것과 함께 모든 종류의 자원결핍으로 인한 미충족 필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박탈은 “각종 자원(resources)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정의된다. 박탈은 경험된 실재, 즉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불평등의 경험이며, 센(Sen, 1999)이나 마멋(Marmot, 2004)의 논의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박탈은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배력⁴⁾의 상실’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박탈은 그 자체의 개념정의만으로도 박탈경험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지 예측하게 해주며, 본 연구는 박탈경험의 다양한 결과들 가운데 불평등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박탈⁵⁾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사회적 저항(social protest)의 설명요인 중 하나이며(Dube & Guimond, 1986: 201), 무엇보다 심각한 사회적 박탈에 시달리는 불평등한 사회는 건강 및 사회문제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Wilkinson, 2005: 9). 박경숙(2008, 98)은 빈곤, 노년, 장애, 그리고 결핍가정에서의 경험이 정체성의 긴장을 야기하며, 이는 불평등의 지배와 그에 대한 저항을 복합적으로 표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박탈경험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동철 외(2013)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 편의시설, 사회정책, 서비스 및 사회적 태도 등의 환경적 요인이 열악할수록 장애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높아진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환경적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박탈은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높이며, 이는 불평등인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텀킨

4) 여기서 말하는 지배력(control)이란 개념은 권위적인 통치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갖는가를 의미한다(Marmot, 2004: 26). 따라서 박탈의 경험은 직업이나 가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지배력의 상실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박탈은 상대적 박탈을 의미하는데,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이라는 개념은 생존에 기본적인 재화의 결핍이 아닌, 사회에 충분히 참여하기 위해 본질적이라고 여겨지는 자존감의 원천들의 결핍을 의미한다(Daniels, 2008: 164).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절대주의(absolutism)와 상대주의(relativism)의 차이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측정된 박탈의 상대주의적 기준에서 사회조사에 의한 박탈의 상대주의적 기준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으로 이해된다(Veit-Wilson, 1986: 97). 따라서 일반적으로 ‘박탈’이라고 했을 때 이는 ‘상대적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Temkin)은 불평등을 서로 다른 집단 혹은 개인 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의견불일치로 이해하면서, 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불평등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Daniels, 2008: 563-565). 즉,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속한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박탈과 같은 실질적인 불평등의 경험은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험된 실재로서의 박탈경험은 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본 연구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로 박탈경험과 불평등 인식에 관한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논의

우울(depression)은 주로 의학적 관점에서 병리적 현상으로 정의된다. 즉,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겨지며(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220), 따라서 우울은 사회적 환경과 사건, 사고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양보람, 2013: 80).

그 동안 우울은 정신건강의 문제로써 매우 강력한 의학적 담론에 의해 개념화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우울 개념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나아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예컨대, 이현정(2012)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이루어진 우울증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면서, 우울증에 관한 담론이 기존의 의학적 담론에서 한국인의 일상적 위험과 불안을 드러내는 ‘사회적 은유’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울은 개인이 경험하는 비관적인 마음 상태이자 동시에 하나의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 또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마키(Tamaki, 2011)는 우울증에서의 관계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을 “사회적 우울증”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따라서 우울은 단순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주요 단면들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

며, 우울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일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우울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박탈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박탈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박탈과 유사개념으로 간주되는 배제, 차별, 지배력 상실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노병일과 손정환(2011)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또한 높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전지혜(2010)의 경우, 장애인의 차별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우울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지연 외(2006)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 연구를 통해, 노인의 차별인식, 주관적 빈곤감, 동네로부터의 배제감이 크고, 자녀와의 관계가 약할수록 우울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리핀과 동료들(Griffin et al., 2003)의 경우,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지배력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우울증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를 발견하였고, 또한 마뎃(Marmot, 2004: 162)은 생활 환경에 대한 낮은 지배력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이며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길버트(Gilbert, 1992)는 낮은 사회적 지위는 우울과 관련된다고 주장한다(Wilkinson, 2005, 190). 무엇보다 다수의 연구에서 박탈과 다양한 건강요인들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Deaton, 2001; Eames et al., 1993; Phillimore et al., 1994; Sloggett & Joshi, 1994; 김창엽·김명희, 2003; 윤탤희, 2010; 허종호 외,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박탈경험과 건강의 대표요인 중 하나인 우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우울은 다수의 연구에서 주로 자살생각 혹은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설명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우울과 불평등인식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자살을 어떠한 실패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실패에 대한 하나의 반응 혹은 전략이나 의도로써 이해한다면(박형민, 2010: 19), 우울의 결과를 반드시 자살과 관련지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울은 사회적 비교와 관련되는 현상 또는 감정으로 이해되며(Wilkinson, 2005: 119),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가치가 없고 열등한 사람이라고 보고, 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여기는 인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Gilbert et al., 1996: 24-25). 다시 말해서,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매우 낮게 평가하며, …… 다른 사람이나 ‘권력자’에게는 높게 나타날 것 같은 매력, 재능, 역량, 호감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Wilkinson,

2005, 191). 따라서 적극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의하다’는 인식, 즉 불평등인식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Bauman, 2013: 91)이라고 했을 때, 타인과의 비교를 야기하는 우울의 내재적 특성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모두 종합해 보면, 박탈 경험은 불평등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박탈경험→불평등인식), 이 때 박탈의 경험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박탈경험→우울), 동시에 우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우울→불평등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박탈경험과 같은 직접적인 불평등의 경험과 불평등인식과 같은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는 다양한 매개요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박경숙, 2008: 97), 이 때 우울은 매개효과들 중 하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인 무기력 상황은 우울의 근본 원인이며, 우울한 사람은 자신과 세계, 그리고 장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Beck et al., 1979; 김경호·김지훈, 2008: 97 재인용). 즉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가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하고, 다음으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불평등 인식을 중심으로 박탈 및 우울과 관련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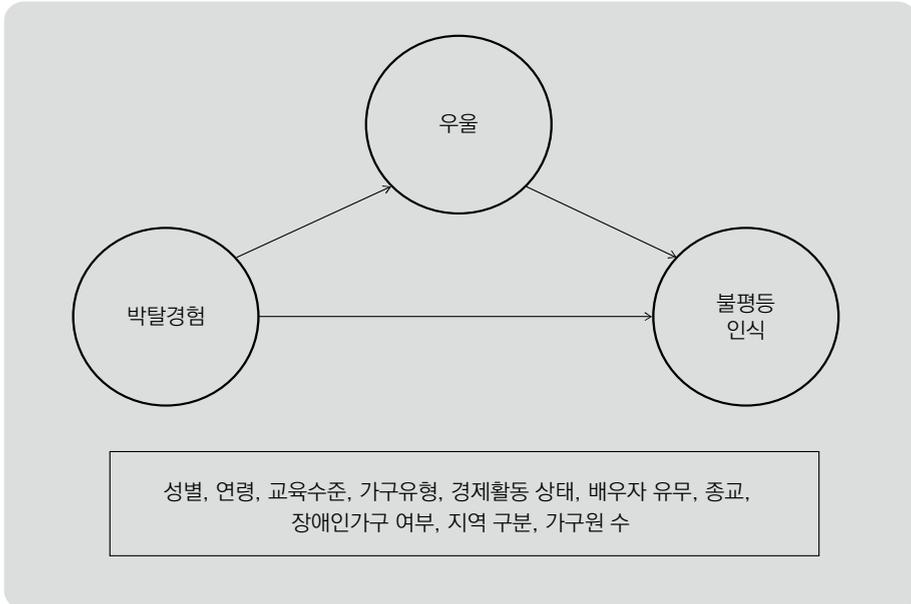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주의 박탈경험이 불평등인식에 영향을 미칠 때 이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구주의 박탈경험과 우울, 그리고 불평등 인식의 수준은 어떠한가?
- 둘째, 가구주의 박탈경험은 불평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가구주의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그림 1. 연구모형



2.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가. 불평등인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불평등 인식은 '권력 및 재화의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평등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평등 인식 척도는 한국복지패널 8차(2013) 자료의 복지인식 부가조사문항 가운데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⁶⁾의 두 문항으로 구성된다. 불평등 개념

⁶⁾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서 변호사, 의사, 고위공무원, 대기업 간부 등이 총 95억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이들은 한 달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고액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온 것을 적발했다고 보도되었다(연합뉴스, 2014.8.7, "월급 1억 넘게 받고도...지방세 체납 2천 865명 적발"). 이러한 사건은 불평등인식에 있어서 세금의 측면이 권력 특성과 관련됨을 잘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에서 권력과 재화가 핵심요인이라고 했을 때(Sen, 1981; Townsend, 1970; 박호성, 1994; 박경숙, 2008), 전자는 재화의 측면을, 후자는 권력의 측면을 의미하게 된다. 불평등 인식은 두 문항을 단순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14점까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 박탈경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박탈경험은 “각 종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정의되며, 이는 실질적인 불평등의 경험으로 이해된다. 박탈경험 변수는 허종호 외(2010)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한나와 박단비(2012), 박경숙(2008), 윤태호(2010)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박탈항목은 ‘식생활영역(5문항)’, ‘주거영역(8문항)’, ‘교육영역(1문항)’, ‘사회보장영역(2문항)’, ‘직업경제영역(3문항)’, ‘사회적 박탈 영역(4문항)’, ‘건강 및 의료 영역(3문항)’ 등 7개 영역,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박탈변수의 각 항목 값들(0=박탈 아님, 1=박탈)은 단순 합산하여 최소 0점부터 최대 26점까지의 값을 지니며, 점수가 높을수록 박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표 1. 박탈지수 영역과 항목 구성

영역	변수 및 내용
식생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량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 보다 적게 먹은 경험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경험
주거	돈이 없어서 2 달 동안 집세를 내지 못한 경험
	연구건물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염, 방습 등에 양호함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음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생활하기에 부적합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함
	주거환경 만족도: 불만족 / 만족 여부
	난방비 미납 경험
전기,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해 끊긴 경험	
교육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경험

영역	변수 및 내용
사회보장	국민연금 납부 여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험
직업경제	가구소득 수준: 저소득가구/일반가구 여부
	실업 여부
	유해환경에서 일한 경험
사회적 박탈	가족 중 신용불량자 존재 여부
	가족관계 만족도: 불만족 / 만족 여부
	사회보험료, 전기, 전화, 수도 요금 등 공과금 못낸 경험
	사회관계 만족도: 불만족 / 만족 여부
건강 및 의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경험
	건강 만족도: 불만족 / 만족 여부
	만성질환 유무

다. 우울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우울은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자가진단척도인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였다. 지난 한 주 간의 생활에 대한 11개 문항으로 우울 수준을 측정하며, 응답범주는 0점(1주일에 1일 이하), 1점(1주일에 2~3일), 2점(1주일에 4~5일), 3점(1주일에 6일 이상)으로 기존 문항을 리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때 11개 문항 중 2개 문항(2번, 7번)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우울증상 판단은 전체 11개 문항의 합산 값에 20/11을 곱한 값으로 하게 되는데, 결과 값이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이현주 외, 2013, 136).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우울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8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관련 선행연구에 근거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가구 여부, 배우자 유무, 종교, 경제활동 여부, 가구유형, 지역 구분 및 가구원 수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통제변수 측정 방법

변수	측정방법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연속변수
교육수준	0=고졸 이하, 1=전문대 졸업 이상
가구유형	0=일반 가구, 1=저소득 가구
경제활동 상태	0=실업(비경제활동 포함), 1=취업
배우자 유무	0=없음, 1=있음
종교	0=없음, 1=있음
장애가구 여부	0=장애가구아님, 1=장애가구
지역 구분	0=특별시 및 광역시, 1=시군 및 도농복합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구주의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자료(2013)를 사용하였다⁷⁾. 한국복지패널은 8차년도 조사에는 모두 7,312 가구, 17,98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본 연구는 가구용, 가구원용, 그리고 복지인식에 관한 부가조사 자료가 통합된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단위는 가구주 개인이며,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총 표본 수는 가구주 7,312명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일반 개인이 아닌 가구주를 분석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수의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증가, 이혼 및 재혼, 한부모 가족 등 가족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정기선·김혜영, 2013: 175-176). 이는 가족의 유지와 연대가 가장 우선하는 가치체계이자 그에 따른 행위를 의미하는 가족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박혜경, 2011: 75),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강력한 가치관으로 존재하

⁷⁾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한국복지패널은 복지욕구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지닌다.

는 가족주의, 그리고 가족주의 하에서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과 책임을 갖게 되는 가구주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가구주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원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더미코딩 등의 가공절차를 거쳐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박탈 경험, 우울 및 불평등인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박탈경험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형 분석⁸⁾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면밀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Sobel, 1982)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 5,113명(69.9%), 여자 2,199명(30.1%)으로 남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약 59세로 70대 이상이 2,498명(3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1,291명(17.7%), 50대 1,285명(17.6%), 40대 1,255명(17.2%), 30대 840명(11.5%), 20대 140명(1.9%)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의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가구주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가 3,560명

⁸⁾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먼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유의미한 설명변수임을 보이고, 둘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유의미한 설명변수임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의 유의미한 설명변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전지혜, 2010, 62).

(48.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졸업 2,034명(27.8%), 대학교 졸업 1,081명(14.8%), 전문대 졸업 447명(6.1%), 대학원 이상 190명(2.6%)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가구유형은 일반가구가 4,229명(57.8%), 저소득 가구가 3,083명(42.2%)이었으며,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취업이 4,645명(63.5%)으로 가장 높았고, 비경제활동 인구 2,603명(35.6%), 실업 64명(0.9%)으로 각각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있음이 4,469명(61.1%)으로 배우자 없음 2,842명(38.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의 경우 있음 3,787명(51.8%), 없음 3,525명(48.2%)으로 각각 나타났다. 장애가구여부는 비장애가구가 5,793명(79.2%)으로 장애가구 3,041명(20.8%)보다 높았고, 거주지역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가 3,041명(41.6%), 시·군·도농복합군이 4,271명(58.4%)으로 각각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2,319명(31.7%)으로 가장 높았으나 1인 가구도 2,000명(27.4%)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4인 가구 1,275명(17.4%), 3인 가구 1,244명(17.0%), 5인 가구 이상 474명(6.5%)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7,31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5113	69.9
	여자	2199	30.1
연령 (평균연령= 약 59세)	20대	140	1.9
	30대	840	11.5
	40대	1255	17.2
	50대	1285	17.6
	60대	1291	17.7
	70대 이상	2498	3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560	48.7
	고등학교 졸업	2034	27.8
	전문대 졸업	447	6.1
	대학교 졸업	1081	14.8
	대학원 이상	190	2.6
가구유형	일반가구	4229	57.8
	저소득가구	3083	42.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경제활동상태	취업	4645	63.5
	실업	64	0.9
	비경제활동인구	2603	35.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469	61.1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별거)	2842	38.9
종교유무	있음	3787	51.8
	없음	3525	48.2
장애가구여부	장애가구	1519	20.8
	비장애가구	5793	79.2
거주지역	특별시, 광역시	3041	41.6
	시, 군, 도농복합군	4271	58.4
가구원 수	1인	2000	27.4
	2인	2319	31.7
	3인	1244	17.0
	4인	1275	17.4
	5인 이상	474	6.5

2. 주요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박탈경험, 우울, 불평등인식 변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박탈경험은 ‘비박탈=0’, ‘박탈=1’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약 1.65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우울은 환산된 값을 기준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까지 측정되며, 환산값 기준으로 평균은 약 7.5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불평등인식은 2개의 문항을 7점 척도로 각각 측정한 후 단순 합산하여 최소 1점에서 최대 14점까지의 값을 지니며 평균값은 약 11.20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4. 주요변수 특성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박탈경험	1	16	1.66	1.75
우울	0	58.18	7.58	9.25
불평등인식	5	14	11.20	1.80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박탈경험, 우울, 불평등 인식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박탈경험과 우울($r=.445,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r=.054, p<.05$), 그리고 우울과 불평등인식($r=.049, p<.05$)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두 경우 모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박탈경험	우울	불평등인식
박탈경험	1		
우울	.445**	1	
불평등인식	.054*	.049*	1

* $p<.05$, ** $p<.01$, *** $p<.001$

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는 박탈경험과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증을 위한 분산 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과 변수에서 VIF 가 3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먼저, 1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박탈경험이 매개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박탈경험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12, p<.001$). 즉, 박탈경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매개변수인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에는 성별($\beta=-.120, p<.001$), 연령($\beta=.046, p<.05$), 가구유형($\beta=.049, p<.05$), 경제활동상태($\beta=-.108, p<.001$), 배우자 유무($\beta=-.081, p<.001$), 종교 유무($\beta=-.081, p<.001$), 장애가구 여부($\beta=.045, p<.001$), 거주지역($\beta=.038, p<.0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가구보다는 저소득 가구가, 취업보다는 실업 및 비취업 상태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장애가구인 경우, 그리고 거주지역이 시·군 및 노동복합인 경우에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박탈경험이 종속변수인 불평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박탈경험은 불평등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81, p<.01$). 즉, 박탈경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불평등인식의 수준 역시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통제변수들 가운데 성별($\beta=.063, p<.05$), 연령($\beta=-.079, p<.01$), 지역구분($-.093, p<.001$), 장애가구 여부($\beta=.052, p<.01$) 등이 불평등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시군도농복합도시 보다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장애가구보다는 장애가구인 경우에 불평등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박탈경험과 매개변수인 우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박탈경험($\beta=.061, p<.05$)과 우울($\beta=.061, p<.05$) 모두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불평등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3단계의 박탈경험 회귀계수가 2 단계의 박탈경험 회귀계수보다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울은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2단계 $\beta=.081 \rightarrow$ 3단계 $\beta=.061$)¹⁰⁾. 통제변수들 가운데에는

9)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김두섭·강남준, 2008).

10)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변수를 제외한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β 가 매개변수의 추가 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완전매개효과, β 값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전지혜, 2010, 62).

성별($\beta=.072, p<.05$), 연령($\beta=-.084, p<.01$), 지역구분($\beta=-.094, p<.001$), 장애가구여부($\beta=.049, p<.05$) 등이 불평등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시군도농복합 도시보다는 특별 및 광역시의 경우, 비장애가구보다는 장애가구의 경우에 불평등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와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구분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3단계 (독립/매개변수→종속변수)		
	B	β	B	β	B	β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2.396	-.120***	.249	.063**	.281	.072**
	연령	.027	.046**	-.009	-.079**	-.010	-.084**
	교육수준	-.005	.000	-.157	-.038	-.158	-.038
	가구유형	.919	.049**	-.056	-.015	-.063	-.017
	경제활동 상태	-2.080	-.108***	-.032	-.009	-.010	-.003
	배우자 유무	-1.528	-.081***	-.071	-.019	-.056	-.015
	종교유무	-.802	-.043***	.037	.010	.043	.012
	장애가구 여부	1.026	.045***	.233	.052**	.219	.049**
	거주지역	.706	.038***	-.340	-.093***	-.345	-.094***
	가구원 수	.123	.017	.037	.026	.033	.023
박탈경험	27.079	.312***	1.387	.081**	1.047	.061**	
우울	-	-	-	-	.012	.061**	
F(sig.)	233.955***		5.384***		5.476***		
R ²	.268		.026		.029		
Adjusted R ²	.267		.021		.024		

* p<.05, ** p<.01, *** p<.001

4.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인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에 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Sobel Test 결과 Z값은 2.389로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은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 사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7.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Sobel Test

경로	Z 값	p-value
박탈경험 → 우울 → 불평등인식	2.389	0.016*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박탈경험과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토대로 불평등인식과 박탈, 그리고 우울과 관련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가구주의 불평등인식 수준은 최대 14점을 기준으로 평균 11.20점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구주의 불평등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측정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강철희·이상철, 2013; 김상돈, 2011; 박상수·서운석, 2012; 장승진, 2011)에서도 우리나라의 불평등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 바 있다. 전술하였듯이, 불평등인식은 현실의 불평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¹¹⁾, 현실에 대한 인식의 지체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11)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 조세체계의 소득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2012년 기준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회원국 중 가장 낮았으나,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국가라는

높은 수준의 불평등인식은 현실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반면 사회통합은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불평등이 보다 심화될 경우, 바우만(Bauman, 2013: 25)의 표현을 빌리자면, “접점과 소통이 거의 없는 두 세계로 구성된 그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즉, 실질적으로 수치화된 불평등 수준의 악화는 물리적·지리적으로 사람들을 갈라놓게 될 것이고, 높은 수준의 불평등인식은 사람들 간의 심리적 거리를 넓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두 현상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크빌(Tocqueville)은 평등을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보고,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거의 평등해서 모든 사람이 비슷한 사고방식과 의식을 갖게 된다면, 개인들은 단번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된다”고 하였다(Wilkinson, 2005: 53). 이는 차이의 평등이 아니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줄여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불평등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불평등 완화 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불평등인식의 중요성이다. 즉, 불평등 완화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치화된 불평등 수준뿐만 아니라 불평등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주요 사회지표 중 하나로써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평등 완화 정책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불평등인식 척도 개발 등 불평등연구에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은 환산점수 기준으로 평균 7.58(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 기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점 이상인 경우에 우울증을 의심하게 된다고 했을 때, 본 연구에서 보고된 우울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낮게 보고된 우울의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것이다. 또한 한국의 조세체계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고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과세 등의 세제를 통해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정도는 한국이 0.03 포인트로(세전 0.34 → 세후 0.31) OECD 국가 중 칠레(0.02 포인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고로 아일랜드(세전 0.59 → 세후 0.33), 영국(0.52 → 0.34), 일본(0.49 → 0.34)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소득세 부과 이후 지니계수가 0.1 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4.8.7.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한국이 OECD 꼴찌 수준”). 따라서 불평등인식 변수를 소득과 세금에 관한 인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울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우울의 수준이 낮을수록 외부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그러한 낮은 우울수준은 발병의 원인이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Tamaki, 2011: 22-58). 따라서 우울은 높고 낮음만으로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우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과 이해가 반드시 요구된다. 예컨대, 윌킨슨(Wilkinson, 2005: 106)은 ‘사회적 지위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serotonin)은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다양한 연구에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개체는 공통적으로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세로토닌은 항우울제 처방에 있어서 중요한 약물이 된다. 하지만 심리철학자인 라벤스크로프트(Ravenscroft, 2005: 124)는 우울증에 관한 유력한 이론에 근거하여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부족을 탓하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경우 치료사의 역할은 우울증 환자의 잘 못된 신념을 확인하고 바로잡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그와 같은 치료방식이 약물치료만큼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마키(Tamaki, 2011: 52-65)는 우울을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보면서, 기존의 투약 및 휴식, 인지행동치료 등과 함께 가족 및 인간관계적 측면에서의 개입을 포함하는 환경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그는 우울에 대한 치료가 단지 사회복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나아가 ‘실재하는 자신’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우울에 대한 건강정책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학적 치료와 함께 사회관계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울에 대한 정책 및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학·보건학·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사회복지학·상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조사대상자인 가구주의 박탈경험 수준은 평균 1.6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박탈수준에서 보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직업·경제적 영역에서의 박탈(0.52점)과 주거영역에서의 박탈(0.50점)은 다른 영역에서의 박탈(건강 0.32점, 식생활 0.14점, 사회보장 0.11점, 사회적 박탈 0.06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박탈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인 측면에서 다른 영역보다 고용 및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용과 주거 영역에서의 높은 박탈수준은 이들이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사회문제라는 사

실을 환기시킨다. 물론 이 작은 글에서 고용·실업 및 주거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삶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가 지닌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굳이 통계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고용과 실업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하여 계급결정론적 입장에서는 주거 관련 불평등이 계급불평등을 반영하며(손낙구, 2008; 신진옥·이민아, 2014: 153), 나아가 주택은 사회적 과시의 수단이며 사회적 지위의 주요한 상징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박소진·홍선영, 2009: 35). 이는 주거에서의 박탈문제는 단순한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불평등의 반영이며, 나아가 불평등인식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주거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의·식·주’ 가운데 하나이며, 일자리는 그러한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필수조건이 된다. 따라서 주거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일상생활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기본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가구주의 박탈경험은 직접적으로 불평등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을 매개로 불평등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먼저, 박탈경험과 같은 실질적인 불평등의 경험이 주관적 불평등인식을 심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수의 연구에서 불평등인식의 심화는 사회적·정치적인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전반적인 갈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인식의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박탈경험에 주목하고, 특히 이것이 실질적인 삶의 경험임을 고려하여,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불평등인식 및 박탈경험에 대한 정기적인 사회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보다 정확한 실질적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¹²⁾. 그리

12) 한국복지패널(2008, 2013)을 비롯해 한국종합사회조사(2005, 2009) 등에서 불평등인식을 조사한 바 있으나, 두 조사 모두 부가조사 및 특별조사 방식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체계화된 척도가 아닌 단순응답 수준에서 조사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을 반영하는 정책 및 서비스가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 간 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울이라는 것이 박탈경험으로 인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불평등인식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인식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강조하게 된다. 무엇보다 자살의 원인으로 우울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울 혹은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두려움을 갖게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우울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울이 감기와 같은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질병이 아니라 감기처럼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관리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을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우울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울수준을 낮춤으로써 불평등인식 역시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자료의 특성 상 우울을 제외하면, 객관화된 척도로 측정된 불평등인식과 박탈경험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남는다. 패널자료의 특성 상 모든 설문문항들을 객관화된 척도만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향후 불평등이나 박탈과 관련된 객관화된 척도가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본 연구의 설정한 연구모형이 유의미하게는 나타났으나 설명력(R²)은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다 다양한 설명변인들의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향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불평등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후속연구나 또 다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용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와 불평등이며, 현재 장애이론 및 장애와 노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rioyarc96@naver.com)

임란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주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보험 및 빈곤이다.

(E-mail: amy1893@nps.or.kr)

참고문헌

- 강철희, 이상철(2013).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의 사회참여행
동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pp.1-28.
- 고영복(2000). 사회학 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김교성, 노혜진(2011). 한국의 빈곤: 다차원적 접근과 재생산 메커니즘. 서울: 나눔의 집.
- 김두섭, 강남준(2008).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개정판. 파주: 나남.
- 김봉석(2008). 사회불평등 이론에 내포된 공정성 함의. 분쟁해결연구. 6(1), pp.7-24.
- 김상돈(2011). 불평등 인식, 정치성향, 정당지지가 정치향의에 미치는 영향. 오토피아.
26(1), pp.141-171.
- 김수현(2003). 빈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빈곤과 건강. 김창엽 편저. pp.23-43.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인유(2014.8.7). 월급 1억 넘게 벌고도...지방세 체납 2천865명 적발.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07/0200000000AKR20140807057400061.HTML?from=search>.
- 김창엽, 김명희(2003).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 한국인의 주요 상병 및 건강행태
분석: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부문 심층 분석 결과. 최정수 편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469-498.
- 노병일, 손정환(20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복지학, 63(1), pp.113-135.
- 박경숙(2008).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 생활세계 내 불평등의 지배와 저항. 한국사회학,
42(1), 96-129.
- 박상수, 서운석(2012). 한·중·일 3국 국민의 사회불평등 인식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
연구, 10(4), 103-127.
- 박소진, 홍선영(2009). 주거를 통한 사회적 과시의 한국적 특수성. 담론 201, 11(4),
pp.35-61.
- 박초롱(2014.8.7).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이 OECD 꼴찌 수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06/0200000000AKR20140806171600002.HTML?from=search>.

- 박호성(1994). **평등론**.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박혜경(2011). 경제위기 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27(3), pp.71-106.
- 배지연, 노병일, 곽현근, 유현숙(2006).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33, pp.7-28.
- 변재욱, 김일중, 최봉제(2013).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형사정책 연구**, 24(4), pp.329-366.
- 손낙구(2008). **부동산 계급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 신진욱, 이민아(2014). 주택보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인과 가족자원의 영향: 분가가구의 자가 취득에 대한 사건사 분석, 1999~2008. **경제와 사회**, 101, pp.151-183.
- 양보람(2013). **한국사회의 우울증 담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동철, 홍현정, 김경미, 김동기, 신유리(2013). 장애인의 장애특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인복지학**, 22, pp.183-206.
- 윤태호(2010). 지역 간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정책과제. **상황과 복지**, 30, pp.49-77.
- 이하나, 박단비(2012).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 박탈경험, 고립감 및 생활만족도 연구-서울복지패널을 이용한 분석-. **재활복지**, 16(1), pp.1-23.
- 이철, 장안식(2009). 복지레짐에 따른 범죄와 사회불평등의 결과와 사회적 함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이현주 외 16명(2013).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승진(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0(2), pp.43-66.
- 전지혜(2010).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우울감의 관계연구-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pp.51-80.
- 정기선, 김혜영(2013). 가족관계만족도를 통해서 본 한국가족의 변화: 1991년~2008년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6(1), pp.175-202.
- 한국건강형평성학회(2007). **건강 형평성 측정 방법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 허종호, 조영태, 권순만(2010).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4(2), pp.93-120.

- Bauman, Z. (2013). *Does the richness of the few benefit us all?* Polity Press.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안규남(역)(2013). 파주: 동녘.
- Benjamin, O. A., Samson, B. S. (2011). Effect of perceived inequality and perceived job insecurity on fraudulent intent of bank employees in Nigeria.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7(1), pp.99-111.
- Daniels, N. (2008). *Just Heal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분배정의와 의료보장: 건강욕구의 공정한 충족. 정혁인, 양승일(역)(2009). 서울: 나눔의 집.
- Deaton, A. (2001). *Relative Deprivation, Inequality, and Mortality*. NBER Working Paper. NO. 8099.
- Dorling, D. (2011). *Injustice: Why Social Inequality Persists*. Policy Press. 불의란 무엇인가: 사회불평등을 지속시키는 다섯 가지 거짓말. 배현(역)(2012). 파주: 21세기북스.
- Dube, L., Guimond, S. (198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Protest: The Personal Group Issue*. James, M., O., Herman, C. P. and Zanna, M. O(eds). In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Comparison: The Ontario Symposium*, 4. pp.201-212.
- Fajnzylber, P., Loayza, N., and Lederman, D. (2002). Inequality and Violent Crim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5(1), pp.1-39.
- Eames, M., Ben-Shlomo, Y., Marmot, M. G. (1993). Social Deprivation and Premature Mortality: Regional Comparison across England. *British Medical Journal*, 307, pp.1097-1102.
- Easterlin, R.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2), pp.22463-22468.
- Easterlin, R. (2005). Feeding the illusion of growth and happiness: A reply to Hagerty and Veenhov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 pp.429-443.
- Easterlin, R.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19), pp.11176-11183.
- Easterlin, R.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 pp.465-484.
- Easterlin, R.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 pp.35-47.

- Edward, G. G. (1997). *Theories of Social Inequality: Class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3rd edition. Harcourt Canada Ltd. 사회불평등: 고전 및 현대 이론. 양춘(역)(2003).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Franicevic, V. (2012). Real and Perceived Inequality, Poverty and Well-Being in South East Europe: Challenges of the Welfare State and Democrac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Democracy and Market Economic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re New Institutions Being Consolidated?". Sapporo, Slavic Research Center, Hokkaido University, September 3-5.
- Ferrer-i-Cabonell, A., Ramos, X. (2012). Inequality and Happiness: A survey. *GINI Discussion Paper* 38.
- George, V., Wilding, P. (1985). *Ideology and Social Welfare*. Routledge & Kegan Paul.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남찬섭(역)(1994). 서울: 한울아카데미.
- Griffin, J. M. Fuhrer, R., Stansfeld, S. A., Marmot, M. (2002). The Importance of low control at work and home on depression and anxiety: Do these effects vary by gender and social cla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4, pp.783-789.
- Graham, C., Felton, A. (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1), pp.107-122.
- Kelly, M. (2000). Inequality and Crim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82(4), pp.530-539.
- Lam, M. (2004). The perception of inequalities: A gender case study. *Sociology*, 38(1), pp.5-23.
- Loveless, M. (2013). The Deterior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Consequences of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Social Justice Research*, 26(4), pp.471-491.
- Marmot, M. (2004). *The Status Syndrome*. Henry Holt & Co.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김보영(역)(2005). 서울: 에코리브르.
- Mullard, M., Spicker, P. (1998). *Social Policy in a Changing Society*. Routledge.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박형신(역)(2004). 서울: 일신사.
- Muller, W. (1993). *Social Structure,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Social Inequality and Party Preferences*. In Krebs, D. & Schmidt, P. (eds). *New Directions in Attitude*

- Measurement. pp.94-117.
- Oppenheim, C.(ed) (1998). *An Inclusive Society: Strategy for Tackling Poverty*. London: IPPR.
- Phillimore, P. Beattie, A., Townsend, P. (1994). Widening Inequality of Health in Northern England 1981~1991. *British Medical Journal*, 308, pp.1125-1128.
- Ravenscroft, I. (2005). *Philosophy of Mind: A Beginner's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심리철학: 초보자 안내서. 박준호(역)(2012). 파주: 서광사.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자유로서의 발전. 김원기(역)(2013). 서울: 갈라파고스.
-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University Press. 불평등의 재검토. 이상호, 이덕재(역)(1999). 서울: 한울아카데미.
- Sen, A. (1981).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Sloggett, A., Joshi, H. (1994). Higher Mortality in Deprived Areas: Community or Personal Disadvantage?. *British Medical Journal*. 309, pp.1470-1474.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Leinhardt, S.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290-312. Washington: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Tamaki Saito (2011). *Sahkaiteki Utsubyou*. Shinchosha Publishing Co. 사회적 우울증. 이서연(역)(2012). 서울:한문화.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Penguin.
- Veit-Wilson, J. H. (1986). Paradigms of Poverty: A Rehabilitation of B. S. Rowntree. *Journal of Social Polity*, 15(1), pp.69-99.
- Wilkinson, R. G. (2005).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The New Press. 평등해야 건강하다. 김홍수영(역)(2008). 서울: 후마니타스.

Stud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Inequality and Depriv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Lee, Woong

(Sungkyunkwan University)

Im, Ran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privation o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ivation and perception of inequality. A mediating analysis of Baron and Kenn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which were derived from Wave 8 (2013)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Main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ly, level of perception of inequality was higher as the deprivation level was higher. Secondly, level of depression concerning this relationship manifested the effect of mediating in parts. Through this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are suggested for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depression, and deprivation of householder in Korea.

Keywords: Deprivation, Depression, Inequality Perception, Social Inequality